

茶 & culture

28 제502호
불기 2548년 12월 1일 수요일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국민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화로들. 조선시대 돌화로(맨 왼쪽, 가운데)와 백동화로.

차화로란 숯불을 피워 차술이나 탕관(湯罐)을 올려놓고 차를 끓이는 다구로, 흔히 다로(茶爐)라고도 한다. 옛날 우리네 가정에서 화로는 유일한 보조 난방기구이자 간단한 취사도구로 쓰였다. 겨울이면 오래 아궁이에 타다 남은 숯불을 재와 함께 화로에 담아 방안에 두어 밤을 굶거나 물을 끓였다. 요즘에는 차화로를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통 다례의식 시연이나 다례 발표회 때에만 사용한다.

차화로는 크게 바람구멍이 없는 화로와 바람구멍이 있어 불을 세게 피울 수 있는 풍화로 나뉜다.

있을 것입니다.”
30여 년간 전남 무안에서 작품 활동을 펼쳐 온 정철수 대표. 그동안 분청사기에 전념해 온 그가 잊혀져가는 차화로의 전통을 잇기 위해 올해 봄부터 차화로를 만들기 시작했다. 물론 자신과 다도 강의를 하고 있는 부인의 차화로를 좀 더 아늑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다. 하지만 일반 찻그릇 보다 훨씬 굵이 두껍고 큰 차화로를 만드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장작 가마의 열을 너무 높여 화로가 터지거나 깨지는 경우도 수차례.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야 ‘그렇듯한’ 차화로가 완성됐다.

바람구멍 유·무에 따라 구분 전기기구들 범람으로 설 자리 잃어

재질에 따라 진흙으로 만든 질화로와 은화로(銀火爐), 놋화로, 무쇠화로 등이 있고 풍로에는 흙으로 만든 전로나 곱돌로 만든 것 등이 있다. 석재화로는 열에 강하고 온기를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가공이 어려워 주로 화석(滑石)이나 곱돌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숯불이나 삶나무를 피우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크롬이나 스테인리스로 만든 전기로선 혹은 알코올 램프를 넣어 사용하는 화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차화로는 추운 겨울날 찻자리에 훈훈함을 더하는 중요한 차도구입니다. 생활방식도 변하고 다양한 전기기구들이 쏟아져 나와 설 자리를 많이 잃었지만, 은근하게 차를 끓이는 차화로 하나가 찻자리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느낄 수

정철수씨 인사동서 ‘차화로전’ 자연재질로 질감 표현, 정형화 탈피

정 대표는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두드리거나 눌러서 차화로를 만든다. 단조로움과 정형화를 피하기 위해서다. 화로의 결면에는 돌맹이나 나뭇가지 등을 두드려 자연스러운 질감을 만든다. 이러한 질감 때문에 그의 차화로는 언뜻 보면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작품은 30여 점. 아직 작품이 무르익지 않아 전시회까지 열 계획은 없었지만 지인들의 요청으로 전시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한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지역에서도 차화로 전시를 하고 싶다”는 정 대표는 “처음 차화로를 만들어 시행착오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빨간 숯을 피운 차화로 위의 술에서 보글보글 물이 끓는다. 조심스레 물을 따라 차를 우려내면 방향 가득 차향이 번진다.

주전자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겨울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잊혀져가는 차 도구인 차화로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도예가 정철수 씨(65·몽평요 대표)가 인사동 나뉘고 갤러리에서 12월 1일까지 펼쳐는 ‘차화로전’을 통해 차화로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몽평요 정철수 대표(맨 왼쪽)가 ‘차화로전’에서 선보인 차화로와 차술. 사진=고영배 기자



차화로에서 끓는건 물만이 아니라네

茶 단신

보성군, 중선양시에 녹차 직판장 개설

전남 보성군(군수 허승완)은 11월 19일 중국 라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소자둔(蘇家屯)구에 보성녹차 직판장을 열고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21일 밝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중국에 직영 특산물 직판장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양시 변화기에 위치한 20여 평의 녹차 직판장에서는 대만다엽과 보성녹차태크 등 보성지역 녹차관련 업체 9곳이 생산한 55개 품목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군은 직판장을 내기까지 4차례의 시장조사를 통해 생인차 보다는 녹차 캔과 티백, 녹차비누, 마사지용 녹차가루, 녹차강정 등 녹차가공품 위주로 수출품목을 주력 상품으로 선정했다.



전남 보성군이 11월 19일 중국 선양시에 문을 연 녹차 직판장 내부 모습.

군 관계자는 “보성 녹차가 중국차에 비해 맛과 향이 뛰어나 상품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중국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 음료수 대용으로 녹차 캔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직판장 개설로 연간 6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성군은 1999년 소자둔구와 자매결연한 것을 계기로 두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직판장 개설을 추진해 왔다.

박순관씨 ‘수레질 찻그릇 이야기’展

경기도 하남시에서 도예공방 거점회를 운영하는 박순관 씨의 초대전 ‘수레질 찻그릇 이야기’가 대구 예술 갤러리에서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옹기 성형 기법인 수레질을 이용해 만든 질박한 느낌의 찻그릇과 향이라, 옹기 굵목, 화병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053426-1515 여수령 기자)



삼국시대 ⑥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고 통일되어 신라는 두 나라의 음다풍습은 물론 제반문물을 자연스럽게 계승하게 되었다. 선왕들의 제례에 차를 올리고 불사지 끊어먹이 이어져 차는 여염으로까지 넓어졌다. 왕궁과 사찰에서 차를 마시니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따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불전(佛殿)과 조상신에게도

차를 올렸다. 제물(祭物)은 제사가 끝난 뒤 사람들이 먹는 것이니 저절로 차를 마시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대외적인 교류 못지않게 일반인들에게 차가 많이 보급되어 음용되기 시작한 때라 하겠다.

현재 출토된 유물 중 자명주(銘酒)

신라, 삼국통일하며 음다풍습 계승·보급

있는 찻그릇이나 질그릇 편을 보면 나라에서 차를 전담하여 마시는 곳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전과 조상신에게 차를 쓰니 여타의 제사에도 차를 썼고 그것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게 됐다. 따라서 이 시기는 차가 많이 보급되어 사용되기 시작

한 때라 하겠다.
① 문무왕은 모계(母系)가 가야쪽이므로 수로왕 17대손 갸세금간에게 매년 명절마다 술, 떡, 밥, 차, 과자 등의 제물을 바치게 했다.
② 남의 의복과 음악을 배운다 음

다풍습이 옮겨온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③ 1975년 임해전지에서 ‘연정다영(言眞茶榮)’이라 쓰여진 토완(土碗)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신심용왕(辛審龍王)’ 명의 찻그릇도 나왔다.
④ 삼국의 통일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음다풍습에 새로운 형태의 차생활과 다구가 첨가되었다.
⑤ 오대산에 들어가 수도한 보천과 효영 두 왕자가 매일 같이 문수보살에게 차를 올렸다. <삼국유사>
⑥ 설총이 쓴 <화왕계(花王戒)>에 “차와 술로서 정신을 맑게 한다”고 했다.
⑦ 영광, 안상, 술랑, 남랑의 네 화랑이 선도(仙道)를 닦으며 다닌 행적으로 강릉에 한송정, 우물과 석지조(石池竈)가 남아 있었던 기록이나 시문(詩文)이 많이 남아있다.
⑧ 행기(行基, 668~749) 스님이 일본 안의 49개 소에 차나무를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시대	시대별 연표		일본
	한국	중국	
삼국시대	655 일본에 150평의 사신 파견 660 백제 멸망 661 수로왕릉에 제례를 올리게 함 ① 664 당의 의복, 음악 등이 보급(신라) ② 668 고구려 멸망, 선왕들의 묘에 삼국통일을 고함 670 의상 스님 당에서 귀국, 검묘점의 고구려 부흥운동 671 고구려 상부(上部), 대상(大相) 등이 도망 672 낙산사 창건 674 임해전(안압지) 조영 ③ 당의 신라 공격 676 무석사 조영, 삼국통일 ④ 679 사천왕사 낙성 682 김유신, 중원침략성취 ⑤ 대산오만 진신(龜山五萬真身) ⑥ 690 화왕계(花王戒) ⑥ 691 백률사 건조 695 원국(圓國)이 당에서 화엄경 한역 698 발해 건국(대조영) ⑦ 사신(四神)들의 유적 ⑦	655 백제정벌(소정방) 667 낙양천도 674 당, 유인제를 보내 신라를 공격	672 임신의 난 ⑧ 성무전황 때 차를 베풀다 (화사사다사문(和事始茶事談)) ⑨ 행기 스님 ⑨
남북국시대	680 무축전의 등극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 경북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는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을 교육하고자 2005년 신입생을 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 (총 2년 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 강사: 경허 상진스님(영산재 보존회 회장)
- 학년 과정
 - 사 물: 북탁, 요령다루는법
 - 송 주: 도량식, 종성등
 - 예 경: 향수해해, 사성례, 칠경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사시불공, 삼보통칭, 퇴공, 각단불공등
 - 재의식: 49제 및 천도의식, 시달림등
 - 시 식: 관음시식, 상용영만, 화엄시식, 구병시식, 일반시식등
- 학년 과정
 - 상주권공: 합향, 등계, 합장계, 고향계, 개계, 세수계, 복청계, 사방찬, 참회계, 시련, 대령, 관육, 율호계(신중작법39위),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식, 봉송회향(49제 및 일반천도의식)
 - 바라춤: 요삼(약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나바라, 화의제바라, 명바라
 - 나비춤: 도량계, 다계, 운심계, 육진이(유남), 사방유진
 - 사 물: 태징, 북, 요령, 북탁(전통의식타법)
 - 특 강: 향회계작법, 가지계, 괘불이은, 종사이은, 절안의식 등
- 개강일시: 2005년 3월중 (1학년 매주 목요일 오후2시~6시까지, 2학년 매주 금요일 오후2시~6시까지) 편입가능
- 입학자격: 종단과 승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수 강 료: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월 10만원
- 강의장소: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설법전
-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 접 수 처: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 경북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 접수기간: 2005년 2월 25일까지
- 연 락 처: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 경북종무원 부설 범패 교육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한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턴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정보상태

◆ 발달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시원기전 043-647-2378, 011-467-147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이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이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외,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우공사)

서울: 011-379-0667
강원도: 010-3044-9708
경기도: 019-690-4018
충청도: 011-327-7697
경상도: 016-9294-8580
전라도: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물,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탠드 마이크
가격: 250,000원

소리공양 종류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즈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구 소
소장 김민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